

자격증 취득 경험기 – 국제무역사 1급 (한국무역협회)

중국학부 중국지역통상전공 2016학번 재학생 정O석입니다. 저는 4학년 학기 중인 2022년 3월에 국제무역사 1급을 취득하였습니다. 위 자격증 소개와 함께 제가 국제무역사 1급에 도전한 경험을 여러 후배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국제무역사 1급은 폭넓고 깊이 있는 무역실무 지식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가 1993년부터 시행해 온 자격시험입니다. 무역 인력의 업무능력 강화 및 정보제공의 수단으로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역분야 자격증 중에서는 무역영어와 함께 가장 많이 취업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격증입니다.

이전에는 자격증 종류가 국제무역사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지금은 1급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험과목은 무역규범, 무역결제, 무역계약, 무역영어 등 4과목이며, 각 과목 당 4지 선다형 40문제씩 총 160문제가 출제 됩니다.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합격기준은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과목별 과락(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 이상 획득 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3학년 때 취업 로드 맵을 확정하고, 무역회사에 취직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경제금융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선택했으며, 졸업 전에 무역에 관한 지식을 쌓고 취업 준비 중 나의 역량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국제무역사 1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균 합격률 30% 수준인 쉽지 않은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나 막막 했습니다. 처음 보는 무역용어들이 가득한 교재를 보는 순간 자신감도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결국 도움을 얻을 방안을 알아보던 중 우리 대학 대학일자리센터에서 방학 중 자격증 특강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특강 과목 중 제가 원하는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가 있었고, 2021년 12월 20일부터 교내에서 동계 자격증 취업특강에 참여하였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 낯설었던 내용들은 강의를 들으니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차근차근 개념 정리부터 하니 자격증 취득에 자신감이 쌓였습니다. 또한 중국지역통상 전공 교과목 수업을 들으면서 배운 개념들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강을 수료한 후, 저의 본격적인 자격증 준비기간은 2달이었으며, 처음 한 달은 개념 정리, 다음 달은 기출문제 및 오답 정리와 복습에 집중했습니다. 문제들은 난이도가 높아 최소 3차례는 복습해야 했습니다. 처음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는 낮은 점수로 실망했지만, 오답을 정리하고 복습을 통해 실수를 줄여 나갔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국제무역사 자격증 공부 방법은 무조건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무역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단계를 머리 속으로 충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연관된 절차와 규정을 단계적으로 암기해야 합니다. 또한 4과목 평균 60점을 넘으면 되는 시험이니 자신 있는 과목에 더욱 집중해서 고득점을 획득하여, 평균점수를 올리는 것도 노하오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특강 전에 독학으로만 공부한 후 제49회 국제무역사 자격증 시험(2021년 8월)에 과감히 도전했으나 4과목 평균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첫 도전 결과, 내가 어떤 과목에 부족한 것을 확실히 알았으며, 특강을 통해 시험대비 전략을 더 정교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26일 전국에서 치뤄진 제50회 국제무역사 시험에 응시(부산 벡스코)하여 평균 70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4과목중 무역계약 과목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 무역영어는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며 무역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를 올린 것 외에도, 대외무역법, 관세법, FTA, 결제, 운송, 보험, 무역서류 등 많은 무역 단계별 실무 사항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은 앞으로 있을 무역회사 입사 면접에서 저만의 역량으로 발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역회사 취업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무역 실무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본인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국제무역사 1급 자격증에 도전할 것을 적극 권유합니다.

